

# 기신사상 특강

불교학과 2024121018

문은미

## 1. 세계철학사에서 분황 원효의 지위

원효(元曉, 617~686))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그의 저술은 동아시아 전역에서 유통되었다. 또한 법장과 같은 후대의 학자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는 서양의 학자들이 원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로버트 버스웰·박성배·찰스 밀러·리차드 맥브라이드 등이다.

그들의 원효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효의 사상은 다음과 같다. 원효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승려 중 한 사람이며 그의 저술은 최고의 수준으로 보고 있다.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학파에 대한 우열없는 동등하게 대하는 학문적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원효의 저술 목적이 표면적으로는 화쟁이었지만, 심층에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하나로 만드는 진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로버트 버스웰은 원효가 저자로 기록된 저술의 대부분이 동아시아불교에서 중요시한 경전이나 논서에 대한 주석서이고, 원효의 저작에서 나타나는 중첩된 설명을 덧붙여 복잡한 구조로 서술하는 방식은 인도가 아닌 중국 고유의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주석 방식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도안(道安, 314~385)과 지의(智顛, 538~597)의 서술 형식을 검토하여 원효의 저술에서도 그 주석 구조가 반영되었음을 증명하였고, 「금강삼매경론」의 구조를 근거로 하여 원효 저술이 동아시아적 주석 방식이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서구 불교학의 기준에 따라 「금강삼매경론」의 과단을 나누는 작업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주석 전통에 익숙하지 않은 서구 연구자들에게 「금강삼매경론」을 명확하게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로버트 버스웰은 「대승기신론소」의 영향으로 「금강삼매경론」이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그 근거로 두 가지 측면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금강삼매경론」의 저술 이유로, 로버트 버스웰은 원효가 불교교단 내부에서 발생한 철학적 갈등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원리와 그가 중시했던 수행, 즉 실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원리를 「금강삼매경」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천적인 측면이 추가되었지만, 회통적 시각을 추구한 것은 「대승기신론소」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효의 서술방식에서, 로버트

버스웰은 「대승기신론소」와 동일한 전거가 「금강삼매경론」의 많은 부분에서 보이며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 구조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금강삼매경론」이 「대승기신론」의 기본 구조에 기반하여 회통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로버트 버스웰은 원효의 회통사상에 대하여 이것은 표면적일 뿐, 그 심층에는 ‘붓다의 가르침으로의 귀결’이라는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관점이다. 그는 십문화쟁론의 서문을 제시하여 원효가 이 논을 지은 이유가 수많은 불교 문헌에서 나타나는 붓다의 가르침 본래의 ‘완전한 소리[원성]’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조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한다.<sup>1)</sup>

원효는 7세기라는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 "모든 대립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시킬 것인가?"라는 인류 보편의 질문에 답한 종교가이자 철학자였다.

## 2. 동아시아 불교사상에서 분황 원효의 위상

동아시아 불교사에서 분황 원효(元曉, 617~686)의 위상은 단순히 한 국가의 고승을 넘어, '인도 불교를 소화하여 동아시아불교라는 독자적인 체계를 완성한 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 1. 원효의 주요 사상 세 가지

첫 번째로 화쟁(和諍)사상이다.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에 근거하여, 대립하는 모든 불교 이론을 하나의 마음으로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는 언어에 집착하지 않을 때만 가능하며, 현대의 정치·종교적 갈등을 해결하는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지혜로 평가받았다.

두 번째로 무애행(無礙行)이다. 행위의 외형보다 내면의 ‘동기’와 ‘정신’을 중시하는 실천법으로 계율을 깊게 이해하여 도덕적 동기에 충실하다면 겉모습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실천이 진정한 계율의 완성이라 보았다.

세 번째는 정토(淨土)사상이다. 누구나 염불을 통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정토 신앙을 제시하였다. 이를 철학적 깊은 의미와 표면적 의미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진리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과 소통하는 ‘방편’의 모범을 보였다.

### 2. 중국 불교에 미친 영향

---

1) 불교학연구 제49호(2016.12) pp. 59~86. 김지연

원효의 학문적 깊이는 중국 불교의 이론적 완성에 기여하였다.

원효의 「금강삼매경소」는 중국에서 경전을 번역하는 삼장들에 의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주석서인 ‘소(疏)’가 아닌 성인의 저술인 ‘론(論)’으로 격상되어 불렸다. 또한 중국 화엄종의 제3조 법장(法藏)은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는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의 「대승기신론의기(大乘起信論義記)」를 남겼으며, 원효의 『이장의』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법장의 「화엄오교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화엄종 4조 징관은 법장에게 원효의 「기신론소」를 공부하였다. 이는 「송고승전」의 「징관전(澄觀傳)」에 나오는 내용이다. 또한 징관은 회남의 법장에게 해동 「기신론소」의 의미를 공부하였다<sup>2)</sup>

### 3. 일본 불교에 미친 영향

원효의 명성은 일본에서도 대단했으며, 실제적인 학문적 전승으로 이어졌다. 원효의 손자 설중엽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국가적인 환대를 받았다. 일본인들은 원효의 저술을 읽고 감명받아 그의 손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매우 기뻐하며 시를 지어 환대하였다고 전해진다.

세상에 전하기는 일본국 진인(真人)이 신라 사신 설중엽 판관(薛判官)에게 준 시(詩)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찍이 원효가 저술한 「금강삼매론경론(金剛三昧經論)」을 읽고 그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것을 매우 한탄하였는데, 신라국의 사신 설중엽 판관이 곧 원효의 손자라는 것을 듣고, 비록 그 할아버지(원효)를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그 손자를 만난 것을 기뻐해서 이에 시를 지어 드린다.” 그 시(詩)가 지금(고려)에도 남아 있는데, 단 그 자손의 이름을 알지 못한다.<sup>3)</sup>

일본 화엄종의 명혜(明惠, 묘에, 1173-1232)는 46세 때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를 강의하였고 일본 화엄종의 지경(智憬)은 원효의 「무량수경종요」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였다. (1282) 그리고 응연(凝然, 교넨, 1240-1321)은 원효의 「유심안락도」의 주석서로 「유심안락도과문」 1권을 지었다. 그리고 의해(義海, 기카이, ?-1766)는 「유심안락도사기」 2권을 저술하였다. 이는 현재에 전해지고 있다.<sup>4)</sup>

이렇듯 일본 불교계는 주석서를 저술하며 주석학이 발달하였고 일본불교의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효의 사상은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일본불교의 이론적 토대를 닦고, 대중적 신앙의 확산을 이끄는 동아시아불교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

2) 송고승전 5권, 「唐代州五臺山清涼寺澄觀傳」(대정장 50권, 737a), “又於淮南法藏, 受海東起信疏義.”, 이병욱 (2025)재인용

3) 삼국사기 46권, 「설총전」, “世傳, 日本國真人, 贈新羅使薛判官詩序云, “嘗覽元曉居士所著金剛三昧論, 深恨不見其人, 聞新羅國使薛即是居士之抱孫, 雖不見其祖, 而喜遇其孫, 乃作詩贈之.” 其詩至今存焉, 但不知其子孫名字耳.” 김상현, 원효연구 (민족사, 2000), 160쪽.

4) 이병욱 (2025), 「원효사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제99회 공동학술대회, p51

다.<sup>5)</sup>

### 3. 분황 원효에게서<금강삼매경론>의 의미와 가치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말기 저술이며, 최후 저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강삼매경론」이 주목되는 이유는 해설 대상인 「금강삼매경」이라는 문헌이 기본적으로 선(禪)에 관한 관점을 천명하는 선적이고 따라서 「금강삼매경론」은 선에 관한 원효의 관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선 탐구와 수행의 결실이 총괄적으로 수렴된 선관(禪觀)을 담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금강삼매경론」을 원효 선학의 완결이라 볼 수 있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을 대승불교 교학의 핵심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삼매의 최고경지로 나아가는 선 수행 체계를 완결된 형태로 설하고 있다. 대안이 그 내용을 편집했다고 한 것이 「금강삼매경」이고, 원효가 그것을 해설한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sup>6)</sup>

원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금강삼매경론」에 이와같이 남겨져 있다.

'한 마음의 근원은 유와 무를 떠나서 홀로 청정하며, 이공(空)의 바다는 진(眞)과 속(俗)을 사무쳐 담연하다.... 파(破)할 것도 없지만 파하지 않을 것도 없으며, 세울 것도 없지만 세우지 않을 것도 없다. 가히 이르되, '이치라 할 것도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렇다 할 것도 없는 큰 그런 것'이니 이른바 이 경의 대의(大意)로다. 진실로 그렇다 할 것도 없는 큰 그런 것인 까닭에 이 법의 설함은 묘하게 한복판을 맞추고 이치라 할 것도 없는 지극의 이치이므로 경전의 종지가 테두리 밖에 뛰어났도다. 파하지 못한 바가 없는 연고로 이름을 금강삼매라 하고, 세우지 않음이 없는 연고로 이름을 섭대승경(攝大經)이라 하며, 일체의 뜻과 근본이 이 둘에 벗어남이 없는 연고로 또 이름하여 무량의종(無量)이라 하는 도다 이 경의 중요(宗要)는 별리어 말할 수도 있고 합(合)하여 말할 수도 있도다. 합쳐서 말하면 한 맛(味)의 관행(觀行)으로... 요지를 하거니와 별리어 말하면 열 단계의 법문(十重法門으로 종(宗)을 하는도다.'

이 내용을 다시 풀어 말하면 이 『금강삼매경』은 가히 뜻으로 헤아릴 수 없고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호념하신 바이며 능히 여러의 일체 지혜 바다에 들어가게 한다하시었으며, 만일 중생이 이 경을 받아 가지면 곧 일체 모든 경 가운데에서 구할 것이 없으리라 하시었으며, 이 경전은 모든 법을 두루 지니어 모든 경의 요긴함을 안았으니 이 모든 경전의 법의 용마루라 하셨다. 이 경의 이름이 「금강삼매경」인 바, 금강이라 함은 비유로 이름한 것인데 견실한 것은 바탕(體)이요, 뚫고 부수는 것은 그 하는 힘인 것인 바 금강삼매도 이와같이 진리의 바닥으로 그 바탕을 삼고, 쳐부수는 것으로 그 공능(功能)을 삼는 것이다. 진리의 바닥으로 바탕을 삼는다는 것은 이치를 증득하여 근원을 궁구한 까닭이 되겠고, 뚫고 부수는 것을 공능으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 뜻

---

5) 위와 동일

6) 박태원(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이 있는데, 첫째는 모든 의심을 쳐부수는 것이요 둘째는 모든 선정(禪定)을 뚫고 들어가는 것인 바, 모든 의심을 쳐부순다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어 의심을 끊는 까닭이요, 모든 선정을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선정은 능히 모든 삼매로 쓰임 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마치 보배 구슬을 꿰어서 쓸모 있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이며 팔만 사천 무진법문을 다 안아버린 「섭대승경」이라 하며, 거룩한 진리를 밝혀 놓으신 무량의 종인 것이다.<sup>7)</sup>

「금강삼매경」은 선의 철학적 근거를 체계화시켰다는 것에 의미가 있으며, 「금강삼매경론」은 그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sup>8)</sup>

#### 4. <금강삼매경론>의 원문과 번역과 주석

金剛三昧經論(616b-619a)<sup>9)10)</sup>

金剛三昧經(無相法品)

金剛三昧經論(正說分)

<616b 22-24>

一者 遠離所取差別之相

첫 번째는, 대상(所取)이 실재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누어짐이 없는 '일심(一心)'의 바다에 이르게 된다.

二者 解脫能取分別之執

둘째는, 인식하는 주체(能取)가 실재한다는 분별적인 집착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三者 遍三世際無所不等

"셋째는,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시간대(三世)에 두루 미치어(遍), 평등하지 않음이 없는(無所不等)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四者 等虛空界無所不遍

7) 불광교학부(1990) 「경전의 세계」, p384

8) 박태원(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9) 金剛三昧經論卷上(ABC, H0017 v1 )

10) 박태원.(2020).「금강삼매경론 상」, p341-370의 내용을 참고

넷째는, 저 끝없는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져서, (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두루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無所不遍) 상태이다.

#### 五者 不墮有無一異等邊 超心行處 過言語道

다섯째는, 있고 없음(有無)이나 하나와 다름(一異)과 같은 양극단(邊)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분별 작용(心行處)을 초월해 있으며, 말과 글의 길(言語道)을 넘어선 경지이다.

#### 過恒沙等本有功德 亦有五義 與體相應

항하(인도 갠지스강)의 모래 수보다 더 많은 본래적인 공덕(本有功德) 또한 다섯 가지 뜻을 지니고서 본체(진여)와 서로 상응하고 있다.

#### 一者 一一功德 離所取相故 非法身所離

첫째는, (진여가 지닌) 낱낱의 공덕들이 인식의 대상(所取)이라는 차별된 모습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법신(진여의 본체)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 與第一相相應 如經言不離故

(진여의 낱낱 공덕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모습(인식 대상의 차별을 떠난 모습)과 서로 부합하니, 경전에서 '(공덕은 법신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 二者 一功德脫能取執故 非法身所脫

둘째는 낱낱의 공덕이 인식하는 주체(能取)라는 집착에서 벗어나(脫) 있기 때문에, 법신(본체)이 벗어던져야 할 대상이 아니다.

#### 與第二相相應 如經不脫故

(진여의 낱낱 공덕은) 앞에서 말한 두 번째 모습(주관적 집착에서 해탈한 모습)과 서로 부합하니, 경전에서 '(공덕은 법신을) 벗어나지 않는다(또는 법신이 공덕을 벗겨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 三者 此一一德遍三世際 縱無前後際斷

셋째는, 이 낱낱의 공덕이 과거·현재·미래(三世)의 모든 끝까지 두루 미쳐 있어서, 설령 (시간의 흐름이 있더라도) 앞뒤의 끝이 끊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 與第三相相應 故言不斷

(진여의 낱낱 공덕은) 앞에서 말한 세 번째 모습(모든 시간대에 두루하여 앞뒤가 끊어짐이 없는 모습)과 서로 부합하니, 그러므로 (경전에서 공덕은) '끊어지지 않는다(不斷)'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四者 此一一德 等虛空界 橫無彼此處異 與第四相相應 故言不異**

네 번째는, 이 낱낱의 공덕이 끝없는 허공계(虛空界)와 같아서, 가로(공간적)로 보아도 '이것'과 '저것'이라는 처소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 네 번째 모습과 서로 부합하니, 그러므로 (경전에서) '차별이 없다(不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五者 一一功德 皆離諸邊 非思量境 絕言語路**

다섯째는, (진여의) 낱낱 공덕이 모두 온갖 극단(諸邊)을 벗어나 있으므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경계(思量境)가 아니며 말의 길(言語路)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다.

**與第五相相應 如經言不思議故**

(진여의 낱낱 공덕은) 앞에서 말한 다섯 번째 모습(모든 양극단을 떠나 말과 생각이 끊어진 모습)과 서로 부합하니, 그러므로 경전에서 '(그 공덕은) 불가사의하다(不思議)'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諸功德法有此五義 與體無別 融通一味**

모든 공덕의 법이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뜻을 지니고 있으니, (이 공덕들은) 본체(진여)와 차별이 없어서(無別) 서로 원융하게 통하며 한결같은 맛(一味)을 이루고 있다.

**由是道理 名爲相應 非如王數 別體相應**

이러한 도리(앞서 말한 일미의 원리)로 말미암아 '상응(相應)'이라 이름하는 것이지, (심왕과 심소처럼) 주체와 부속물이 별개의 본체(別體)로서 결합하는 상응과는 다르다.

**今此中 言不離不脫智不思議法者**

지금 이 (대승기신론) 본문에서 말하는 '떠나지 않고(不離)', '벗어나지 않으며(不脫)', '지혜가 불가사의하다(智不思議)'고 하는 법(法)이란

**諸功德中 略舉覺義 五相應中 略說三義**

(진여의) 수많은 공덕 가운데서는 '깨달음의 의미(覺義)'를 간략히 들어 설명한 것이요, (앞서 말한) 다섯 가지 상응하는 뜻 가운데서는 '세 가지 뜻(불리·불탈·불가사의)'을 간략히 설한 것이다.

**此是第一能攝藏也 三種藏義 略述如之**

이것이 바로 (진여가 모든 공덕을) 능히 거두어 머금고 있다는 '능섭장(能攝藏)'의 의미이다. (여래장이 지닌) 세 가지 저장의 의미(藏義)를 간략하게 서술하면 이와 같다.

**言二門者 如夫人經言**

(여래장에) 두 가지 문(二門)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승만경(勝鬘夫人經)》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다.

**空如來藏者 若離若脫若異一切煩惱藏**

공여래장(空如來藏)'이란, 온갖 번뇌의 무더기(煩惱藏)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離), 벗어나 있으며(脫), (본질적으로) 다른(異) 상태를 말한다.

**不空如來藏者**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란, (앞서 말한 비어 있는 자리에) 항하사(갠지스강의 모래)보다 더 많은 무한한 공덕이 본래부터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한다.

**<616c 01-24>**

**不離不脫不異不思議佛法**

(그것은 진여의 본체와) 분리되지 않고(不離), 벗어나지 않으며(不脫), 다르지 않고(不異), 사유를 넘어서는(不思議) 부처의 법(佛法)이다.

**案云 諸煩惱法 皆是虛妄 由境不實故虛**

풀이하여 이르기(案云), 온갖 번뇌의 법(諸煩惱法)은 경계(境)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허(虛)라 하고, 모두가 허망한 것(虛妄)이다.

**由體散亂故妄 妄故無眞 虛故無實 無眞實故 說名爲空**

본체(體)가 산란하기 때문에 망(妄)이라 한다. 망령되기 때문에 참됨(眞)이 없고, 허하기 때문에 실재함(實)이 없다.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공(空)'이라 설하는 것이다.

**能覆如來 名如來藏 卽是空議 隱覆眞也**

여래(如來)를 능히 덮고 있는 것(能覆)을 이름하여 여래장(如來藏)이라 하니, 이것이 곧 공(空)의 의미(議)이며, 진여(眞)를 은밀히 덮고 있는(隱覆) 것이다.

**諸煩惱境 不實之相 法身所離 故曰若離**

온갖 번뇌의 대상(境)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不實之相)을 법신(法身)이 떠나 있는(所離) 것이기에 '약리(若離)'라고 말한다.

**諸煩惱體妄執之縛 法身所脫 故言若脫**

온갖 번뇌의 본체(體)인 망령된 집착의 포박(妄執之縛)을 법신(法身)이 벗어나 있는(所脫) 것이기에 '약탈(若脫)'이라고 말한다.

**言若異者 卽前虛妄差別分別乖於法身平等性故**

'약이(若異)'라고 말하는 것은, 곧 앞의 허망한 차별과 분별이 법신(法身)의 평등한 성품(平等)

性)과 어긋나기(乖) 때문이다.

**以此三義 不相應故 是無眞實 卽是空義也**

이러한 세 가지 의미(三義)로 말미암아 (번뇌는 법신과) 서로 상응하지 않기(不相應) 때문이다. (이처럼 번뇌는) 참됨과 실재함이 없으니(無眞實), 이것이 곧 '공(空)'의 의미(義)이다.

**言不空者 一切功德 與體相應體非妄故眞 境非虛故實 由眞實故 說名不空**

불공(不空)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갖 공덕이 본체(體)와 서로 상응(相應)하기 때문이다. 본체가 망령되지 않기에 '참됨(眞)'이라 하고, 경계가 허망하지 않기에 '실재함(實)'이라 한다. 이러한 진실함(眞實)으로 말미암아 이름하여 '불공(不空)'이라 설하는 것이다.

**如來被覆 名如來藏 不離不脫等句 是釋不空之義**

여래(의 청정한 본성)가 번뇌에 덮여 있는 것을 이름하여 '여래장'이라 하니, (부처의 무량한 공덕이 본질적인 청정함에서) 떠나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다[不離不脫]는 등의 구절은 바로 (여래장이 공덕으로 가득 차 비어 있지 않다는) '불공(不空)'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義如三種藏門已說 然此中不空如來藏體 卽前**

(이러한 뜻은 이미 (앞서) 세 가지 저장의 문(三種藏門)에서 설한 바와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의 본체(體)는 곧 앞에서 말한 것이다.

**三中第一之法 此中空義 是彼第二**

(앞서 설한 불공여래장은) 세 가지 (저장의 의미) 중 첫 번째의 법(能攝藏)이며, 여기에서의 '공(空)'의 의미는 바로 저 두 번째(所攝藏)에 해당한다.

**而彼三種如來藏中隱覆之義 合在第三**

그리고 저 세 가지 여래장(如來藏)의 의미 가운데, 은밀히 덮여 있다는 '은복(隱覆)'의 뜻은 합하여 세 번째(隱覆藏)에 있게 된다.

**故前二中 別顯能攝所攝二義**

그러므로 앞의 두 가지(공·불공) 가운데서, 능섭(能攝)과 소섭(所攝)의 두 가지 의미를 개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今此二種如來藏門 欲顯空義 隱覆眞實 故別能覆所覆二義**

이제 이 두 가지 종류의 여래장 문(二種如來藏門)에서 '공(空)'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번뇌가) 진실함(眞實)을 은밀히 덮고 있기(隱覆)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래를) '능히 덮고 있는 것(能覆)'과 '가려져 있는 것(所覆)'의 두 가지 의미를 개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 又此二經 互顯別義 所以二三兩門異釋

또한 이 두 경전(또는 두 교설)은 서로 다른 의미를 교차하여 나타내고 있다. 그러기에 (여래장을) 두 가지 문(二門)과 세 가지 문(三門)으로 나누어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 且止乘論 還釋本文

논설(論)을 펼치는 것은 이쯤에서 그만두고(且止), 다시 본문(本文)을 풀이하겠다(還釋).

經) 佛言 如來藏者 生滅慮知相 隱理不顯 是如來藏 性寂不動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래장(如來藏)이란 생멸하며 생각하고 분별하는 모습(生滅慮知相)에 [본체의] 이치가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래장이다. [그러나 그] 성품<sup>11)</sup>은 고요하여 요동하지 않는다' 하셨다.

### <요약>

본문은 여래장의 핵심 원리인 '공(空)'과 '불공(不空)'의 의미를 번뇌와 법신(진여)의 관계를 통해 규명하고 있다. 번뇌는 경계가 실재하지 않고 본체가 산란하여 허망하므로, 참됨과 실재함이 없다는 뜻에서 '공(空)'이라 한다. 법신(부처)은 이러한 번뇌의 대상에서 떠나 있고[若離],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 있으며[若脫], 차별·분별하지 않아 평등하다[若異].

반면 '불공(不空)'은 온갖 청정한 공덕이 진여의 본체와 온전히 상응하여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법신의 본체는 망령되지 않아 참되고[眞], 그 경계는 허망하지 않아 실재하므로[實] 이를 '진실(眞實)'이자 '불공'이라 설한다. 따라서 여래가 번뇌에 덮여 있을지라도, 부처의 공덕이 그 본성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다[不離不脫]는 것은 불공여래장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원효는 이 원리를 앞서 설명한 여래장의 세 가지 관점인 삼종장문(三種藏門)과 연결하여 체계화하였다. 본체에 공덕을 거두어 지닌다는 '불공'의 뜻은 첫 번째 능섭장(能攝藏)에, 번뇌가 실재하지 않는다는 '공'의 뜻은 두 번째 소섭장(所攝藏)에 해당한다. 또한, 번뇌가 진여를 은밀히 가리고 있다는 '은복(隱覆)'의 뜻은 세 번째 은복장(隱覆藏)에 결합한다.

결론적으로 이 논증은 경전의 교설에 따라 여래장을 2문(공·불공) 혹은 3문(능섭·소섭·은복)으로 나누어, 번뇌의 허망함[空]과 법신의 진실함[不空]을 입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 <617a02-a24>

#### 生滅慮知相者 卽是空如來藏

생멸하는 분별적 지각의 양상은 곧바로 공여래장(空如來藏)이다.

#### 但此文中 顯能隱義 而不名此爲如來藏

다만 이 글 속에서는 (진여가) 능히 (번뇌에) 숨겨지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것을 일컬

11) 눈, 귀, 코, 혀, 몸을 통하여 의식이 차별하여 매이지 않고 있는 대로 아는 것이 여래이다. 여래의 성품은 정확히 알게 할 뿐 미혹하게 분별하지 않고 고요하기에 움직임이 없다.

어 여래장이라 이름하지는 않는다.

言隱理不顯 是如來藏者 是不空如來藏 約所隱義 名如來藏

진여의 이치가 (번뇌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 것을 '여래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다. (이는) 숨겨진 바(진여)의 의미에 근거하여 여래장이라 이름한 것이다.

言性寂不動者 顯此藏性 雖隱不改 此性有五義 如無相論說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 여래장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니, (본성이 번뇌에) 비록 숨겨져 있을지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성품에는 다섯 가지 뜻이 있으니, 『무상론(無相論)』에서 설한 것과 같다.

一 種類義 是性義

일종(一種)의 부류(類)라는 뜻이 바로 성(性, 성품)의 의미이다.

如瓶衣等一切色法 不離四大種類 皆以四大爲性

마치 병(瓶)이나 옷(衣) 등 모든 색법(色法, 물질)이 사대(四大)의 종류를 벗어나지 않으며, 모두 사대를 성품으로 삼는 것과 같다.

如是衆生不出一界 皆用一界爲種類故

이와 같이 중생도 하나의 세계(一界, 법계)를 벗어나지 않으니, 모두가 하나의 세계를 (자신의) 종류(본질적 부류)로 삼기 때문이다.

攝大乘論 名體類義 佛性論中 名自性義

『섭대승론(攝大乘論)』에서는 (이를) '체류의(體類義, 본체의 부류라는 뜻)'라 이름하고, 『불성론(佛性論)』 중에서는 '자성의(自性義, 스스로의 성품이라는 뜻)'라 이름한다.

言有左右 意無異也

"말(표현)에는 좌우(치우침이나 차이)가 있으나, 그 뜻(본질)에는 다름이 없다."

二者 因義 是性義

두 번째는, 인(因, 원인)이라는 뜻이 바로 성(性, 성품)의 의미이다.

如木中有火性 與火作因 故名爲性

마치 나무 속에 불의 성품(火性)이 있어 불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므로, (그것을) 성품이라 이름하는 것과 같다.

如是聖人諸無漏法 以此爲因 而得成故 彼二論中 同名因義也

이와 같이 성인의 모든 무루법(無漏法, 번뇌 없는 지혜)이 이것(여래장)을 원인으로 삼아 성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 두 논서(『섭대승론』과 『불성론』)에서도 똑같이 '인(因)의 의미'라고 이름하였다.

### 三者生義 是性義

세 번째는, 생(生, 나타남/발생)이라는 뜻이 바로 성(性, 성품)의 의미이다.

### 如鍊眞金生莊嚴具 莊嚴具生 以金爲性

마치 순수한 금을 불에 달구어 단련하면 장엄구(莊嚴具, 보석 장식품)가 생겨나는 것과 같으니, 장엄구가 생겨남은 금을 성품으로 삼기 때문이다.

### 此界亦爾 能生果地五分法身 法身之生 此界爲性

이 계(界, 여래장) 또한 그러하여, 능히 과지(果地, 깨달음의 단계)의 오분법신(五分法身)<sup>12)</sup>을 생겨나게 한다. 법신이 생겨 남은 이 계(界)를 성품으로 삼기 때문이다.

### 攝大乘中 亦名生義 佛性論中 名至得義

『섭대승론』에서도 또한 '생(生)의 의미'라 이름하고, 『불성론』 중에서는 '지득(至得, 도달하여 얻음)의 의미'라고 이름한다.

### 爲別因義 是在果前故 就已生名至得義

(세 번째 뜻을 '지득'이라 하는 것은) '인(因)'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인이란) 결과의 이전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이미 생겨난 결과에 나아가서 이름을 붙일 때는 '지득(至得)'의 의미라고 한다.

### 四者 不改義是性義

네 번째는, 바뀌지 않는다(不改)는 뜻이 바로 성(性, 성품)의 의미이다.

### 猶如金剛寶性 一劫等住 無增無減

마치 금강보(金剛寶)의 성질과 같아서, 일 겁(一劫) 동안이나 한결같이 머물러 (본질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것과 같다.

### 如是此界 三世等住 世間不壞 出世不盡

이와 같이 이 계(界, 여래장)도 삼세(三世, 과거·현재·미래)에 평등하게 머물러서, 세간(世間)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출세간(出世間)에서도 다하지 않는다.

### 彼二論中 名眞實義

---

12) 계(戒), 정(定), 혜(慧), 해탈(解脫), 해탈지견(解脫知見)

저 두 논서(『섭대승론』과 『불성론』) 중에서는 (이를) '진실의(眞實義, 참되고 실제적인 뜻)'라 이른다.

<요약>

생멸하는 분별적 지각은 '공여래장(空如來藏)'에 해당하지만, 문맥상 진여가 숨겨지는 의미만 드러낼 뿐 이를 직접 여래장이라 부르진 않는다. 진여의 이치가 번뇌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여래장이라 부르는 것은, 숨겨진 진여 본체에 초점을 맞춘 '불공여래장(不空如來藏)'이다. 여래장의 성품은 번뇌에 가려져 숨겨져 있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며[不改], 이 성품에는 다섯 가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는 '종류(類)의 뜻'으로, 만물이 사대(四大)를 본질로 삼듯 모든 중생은 하나의 청정한 법계(一界)를 본질적 부류로 공유한다.

둘째는 '원인(因)의 뜻'으로, 나무 속에 불의 성품이 있어 불을 일으키듯 여래장은 성인의 번뇌 없는 지혜[無漏法]를 성취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다.

셋째는 '나타남(生)의 뜻'으로, 순금을 단련하면 장식품이 나오듯 여래장은 깨달음의 단계에서 온전한 법신(法身)을 생겨나게 하는 본성이다.

이 세 번째 뜻은 원인 상태[果前]를 뜻하는 '인(因)'과 구별하기 위해, 이미 성취된 결과에 나아가 '지득(至得, 도달하여 얻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넷째는 '바뀌지 않는다(不改)는 뜻'으로, 금강석의 성질이 오랜 세월 동안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처럼 여래장의 본성은 한결같다.

여래장은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평등하게 머물러 있어, 세간에서 파괴되지 않고 출세간에서도 결코 다하지 않는 '진실(眞實)'한 것이다.

이 논증은 다양한 논서(섭대승론, 불성론)의 표현 차이를 회통하며, 번뇌에 가려진 중생의 본성이 곧 부처를 이루는 불변의 근본 요인임을 증명한다.

<617b 01-24>

眞實義者 是不壞義 所以言異而意同也

진실(眞實)의 의미라는 것은 곧 파괴되지 않는다(不壞)는 뜻이다. 그러므로 말(표현)은 다르나 그 뜻은 같다고 하는 것이다.

五者 密藏義 是性義

다섯 번째는, 밀장(密藏, 비밀스럽게 간직함)이라는 뜻이 바로 성(性, 성품)의 의미이다.

如黃石中有眞金性

마치 황석(黃石, 금빛 돌) 속에 진짜 금의 성질(眞金性)이 들어 있는 것과 같다.

若不破鑛 無所利益 隨順鍊治 卽有寶用

만약 광석(鑛)을 깨뜨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이익이 될 바가 없으나, (그 성질에) 순응하여 단련하고 다스린다면 곧 보배로운 쓰임이 있게 된다.

是故彼性 是隱藏義

이러한 까닭에 저 성품은 (번뇌 속에) 은폐되어 감추어져 있다는 뜻(隱藏義)이다.

如來藏性 當知亦爾

여래장의 성품 또한 (앞서 든 비유들과) 마땅히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不破其纏 爲外爲染 破纏相應 成內成淨

그 번뇌의 얽매임(纏)을 깨뜨리지 못하면 '걸'이 되고 '더러움'이 되며, 번뇌를 깨뜨려 (본성과) 상응하게 되면 '안'이 되고 '깨끗함'이 된다.

故知此性 是密藏義

그러므로 이 (여래의) 성품이 '밀장(密藏, 비밀스럽게 간직함)'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佛性論中 名秘密義 攝大乘論 名爲藏義

『불성론』 중에서는 '비밀(秘密)의 의미'라고 이름하고, 『섭대승론』에서는 '장(藏, 간직함/창고)의 의미'라고 이름한다.

義同言異 灼然可見

뜻은 같으나 말(표현)이 다른 것임을, 이제 불을 보듯 명백히 알 수 있다.

今此文中 所言性者 舍此五義

지금 이 글(문장) 가운데서 말한 '성(性, 성품)'이라는 것은, 이 다섯 가지 의미를 모두 머금고 있는 것이다.

寂不動者 略顯後二

적부동(寂不動,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것은, 대략 뒤의 두 가지 의미(불개·밀장)를 나타낸 것이다.

寂是密藏義 不動是不改義故 上來正廣一覺義竟

적(寂, 고요함)'은 밀장(密藏)의 의미이고, '부동(不動, 움직이지 않음)'은 불개(不改)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위에서부터 '일각(一覺, 한결같은 깨달음)'의 의미를 올바르게 넓게 설명하는 것을 마친다.

經) 解脫菩薩而白佛言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尊者 云何生滅慮知相

존자(부처님)시여, 무엇을 일컬어 '생멸하며 생각하고 아는 모습(生滅慮知相)'이라 합니까?

自此已下 有六問答 因論生論 決諸疑難

이로부터 아래로 여섯 가지 문답이 있으니, 논의로 인해 다시 논의가 생겨나며 모든 의심나고 어려운 점들을 해결한다.

此一"問答 明其能隱慮知之相

이 첫 번째 문답은 (본성을) 능히 가리고 있는 '여지(慮知, 생각하고 분별함)'의 모습을 밝히는 것이다.

經) 佛言 菩薩 理無可不 若有可不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치(理)에는 옳고 그름(可不)이 없느니라. 만약 옳다거나 그르다는 분별이 있다면

卽生諸念 千思萬慮 是生滅相

곧 온갖 생각(諸念)이 일어나게 되니, 수많은 생각과 만 가지 고뇌(千思萬慮)가 바로 생멸의 모습(生滅相)이니라.

此答中 有二重 先略答 後廣演 略中二句 先舉所迷

이 답변(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두 겹(이중의 구조)이 있다. 먼저는 간략하게 답하고(略答), 나중에는 넓게 펼쳐서 설명한다(廣演). 간략한 답변(略) 가운데에 두 구절이 있으니, 먼저는 우리가 미혹되어 있는 바(所迷)를 들어낸다.

所迷之理 心行處滅 故言理無可不 可者是也 不者非也

(우리가) 미혹된 바의 이치(理)란 마음의 작용(心行)이 끊어진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치에는 옳다거나 그르다 함(可不)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가(可)'라는 것은 옳다는 것이요, '불(不)'이라는 것은 그르다는 것이다.

理絕四句 離諸是非 非分別心之所行處也

이치(理)는 사구(四句)<sup>13)</sup>를 끊어냈고 모든 시비(是非)를 여의었으니, (따라서) 분별하는 마음이 행할 수 있는 곳 즉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요약>

여래장 오의(五義)와 '이무가불(理無可不)'의 가르침으로 여래장은 부처와 중생이 한 종류이며 (성), 성불의 씨앗이 있고(인), 수행하면 공덕이 나타나며(생), 결코 변치 않고(불개), 비밀스럽게 간직되어 있다(밀장)는 다섯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 다섯 가지 성품은 우리 마음속에 '금광석 속의 금'처럼 실재하지만, 번뇌의 광석을 깨뜨리는 수행이 없으면 그 보배로운 쓰임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여래장의 본질을 '적부동(寂不動)'이라 정의하며, 이는 고요하여 비밀스럽고 움직이지 않아 변치 않는 진리의 자리를 뜻한다.

모든 교학적 논의와 복잡한 비유들은 결국 우리 마음이 본래 하나의 깨달음 그 자체라는 '일각(一覺)'의 도리를 증명하는 방편이다.

해탈보살은 우리가 이 본래의 깨달음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멸하며 분별하는 마음(생멸려지상)'을 지목하며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서는 진리의 이치(理)에는 본래 "옳다(可)"거나 "그르다(不)"는 이분법적 구분이 없음을 선언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맞다, 틀리다"라는 주관적 잣대(가불)를 들이대는 순간, 고요했던 마음에는 수만 가지 망상과 번뇌(천사만려)가 폭포처럼 쏟아진다.

진정한 이치의 자리는 우리의 언어와 생각이 미칠 수 없는 '심행처멸(心行處滅)'의 경지이며, 인간의 좁은 분별심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

또한 진리는 '있음'이나 '없음' 같은 논리적 틀(사구)에 갇히지 않으므로, 모든 상대적인 시비와 대립을 완전히 여의어 있다. 우리에게 시비와 분별을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설 때, 비로소 내면에 숨겨진 부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 <617c01-24>

次顯能迷 若有可不 卽生諸念者 以有無明 不覺平等 卽有分別可不之心

다음은 능히 미혹하게 되는 것(주체)을 나타냄이라. 만약 '옳다(可)거나 그르다(不)' 함이 있어 곧 여러 망념이 생겨난다는 것은, 무명이 있음으로써 평등한 (일심의) 도리를 깨달지 못했기 때문이니, 곧 '옳다거나 그르다'라고 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 由是具起六種染心故

이로 말미암아 (근본 무명으로부터 지말적인 미혹까지) 여섯 가지 종류의 물든 마음(染心)<sup>14)</sup>을

13) 존재에 대해 '①있다, ②없다, ③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④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의 네 가지 판단을 적용하는 것. 여기서의 있음, 없음, 옳음, 그름으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을 말함.

14)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오염된 여섯 가지 마음'을 뜻함. 발생 원인: 근본무지(無明)로 인해 현상들의 평등한 면모(平等性)를 깨달지 못하고, 옳고 그름을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보아 분별하는 마음(分別可之心)이 생겨남으로써 발생함.

육종염심(六種染心)의 종류 및 극복 단계: (수행 계위)오염된 여섯 가지 마음은 수행자가 깨달음의 단계

갖추어 일으키기 때문이다.

千思萬慮 是生滅相者 六種染心 雖有麤細 皆違平等 是生滅相故

일체의 분별적 사고 곧 생멸하는 한 것은, 여섯 가지 종류의 물든 마음(染心)<sup>15)</sup>이 비록 거칠고 미세함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평등한 도리에 어긋나므로 곧 이것이 생멸하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如起信論云 復次分別生滅相者 略有二種 云何爲二

『기신론』에서 말하기를, '다시 생멸하는 모습(生滅相)을 분별하자면 대략 두 가지가 있으니, 무엇을 두 가지라 하는가' 하였다.

一者麤。與心相應故。

첫 번째는 거친 것이니, 마음(심왕)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기 때문이다.

二者細 與心不相應故

두 번째는 미세한 것이니, 마음(본체)과 서로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又麤中之麤 凡夫境界

(이승의 해탈, 대승의 신상응지, 십지 등)를 거쳐 가며 점진적으로 끊어내고 최종적으로 여래지에 도달하게 된다. ①첫 번째, 집착에 서로 응하는 오염된 마음(執相應染)[가르침을 들어서 혼자] 부처가 되려는 수행자(성문)와 '연기의 이치를 깨달아 [혼자] 부처가 되려는 수행자'(연각)의 해탈 상태 관련. 대승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서로 응하는 경지(信相應地)에 의거하여 멀리 벗어남. ②두 번째[집착이] 끊어지지 않는 것에 서로 응하는 오염된 마음(不斷相應染)[진리에 대한] 믿음과 서로 응하는 경지(信相應地)에서 '수행의 수단과 방법(方便)'을 익히고 배워 점차 버려감. 대승보살의 '열 가지 본격적인 수행경지(十地)' 가운데 첫 번째 경지(初地, 환희지)인 '온전한 마음의 경지'(淨心地)를 성취하여 궁극적으로 벗어남. ③세 번째[근본무지에 따라] 분별하는 이해에 서로 응하는 오염된 마음(分別智相應染)십지(十地)의 '두 번째 경지(第二地, 이구지)'인 '윤리적 행위능력을 두루 갖춘 경지(具戒地)'에서 점차 벗어남. 십지의 일곱 번째 경지(第七地, 원행지)'인 '불변·독자의 본질/실체로 차별될 차이가 없이 방편을 쓸 수 있는 경지'(無相方便地)에 이르러 궁극적으로 벗어남. ④네 번째[식(識)이] 나타낸 유형적인 대상에 [의식 차원에서는] 서로 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現色不相應染)유형적인 대상과 의식 차원에서 상응하지 않는 미세한 염심.십지의 여덟 번째 경지(第八地, 부동지)인 '유형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경지'(色自在地)에 의거하여 벗어남. ⑤다섯 번째'주관이 된 마음에 [의식 차원에서는] 서로 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能見心不相應染)주관적 보는 마음에 상응하는 미세한 염심.십지의 '아홉 번째 경지(第九地, 선혜지)'인 '마음에서 자유로운 경지'(心自在地)에 의거하여 벗어남. ⑥여섯 번째[근본무지에 의한] 애초의 움직임에 [의식 차원에서는] 서로 응하지 않는 오염된 마음(根本業不相應染)가장 뿌리 깊고 미세한 근본 업식의 움직임.십지의 '열 번째 경지(第十地, 법운지)'인 '보살의 수행단계를 모두 마친 경지(菩薩盡地)'에 의거하여 '여래의 경지'(如來地)에 들어가면 마침내 벗어남.

또한 거친 것 중에서도 (더욱) 거친 것은 범부(凡夫)의 경계이다.

### 麤中之細 細中之麤 菩薩境界

거친 것 중의 미세한 것(麤中之細)과 미세한 것 중의 거친 것(細中之麤)은 보살(菩薩)의 경계요

### 細中之細 是佛境界

미세한 것 중의 미세한 것(細中之細)은 오직 부처(佛)의 경계이다.

### 此二種生滅 依於無明熏習而有

이 두 가지 종류의 생멸(거친 것과 미세한 것)은 무명의熏습(熏習)에 의지하여 있게 되는 것이니,

### 所謂依因依緣

이른바 인(因)에 의지하고 연(緣)에 의지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 依因者 不覺義故 依緣者 妄作境界義故

인(因)에 의지한다는 것은 깨닫지 못함(不覺)의 의미이기 때문이요, 연(緣)에 의지한다는 것은 망령되어 경계(대상)를 만드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若因滅即緣滅

만약 인(因)이 멸하면 곧 연(緣)도 멸한다.

### 因滅故 不相應心滅 緣滅故 相應心滅

인(因)이 멸하기 때문에 (심왕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 마음(미세한 번뇌)이 멸하고, 연(緣)이 멸하기 때문에 (심왕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는 마음(거친 번뇌)이 멸한다.

### 案云 此中麤與心相應者 謂三種相應染

살펴보건대, 이 가운데 '거칠며 마음과 서로 상응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상응염(相應染, 상응하여 오염된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 細與心不相應者 三種不相應染

미세하며 마음과 서로 상응하지 않는다(不相應)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불상응염(不相應染, 상응하지 않은 채 오염된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 麤中之麤者 謂執相應染 不斷相應染 皆在六識故 凡夫境界也

거친 것 중에서도 (더욱) 거친 것이라고 한 것은 집착하여 상응하는 물듭(집상응염, 執相應染)과 끊이지 않고 상응하는 물듭(부단상응염, 不斷相應染)을 일컫는 것이니, 모두 제6의식(六識)

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범부(凡夫)의 경계라 하는 것이다.

### 麤中之細者 謂分別智相應染 在第七識

거친 것 중에서도 미세한 것(麤中之細)이라 함은 분별하는 지혜와 상응하는 물듸(지상응염, 智相應染)을 일컫는 것이니, 제7식(第七識)에 있다.

### 細中之麤者 謂現色不相應染 能見心不相應染

미세한 것 중에서도 거친 것(細中之麤)이라 함은 색을 나타내는 상응하지 않는 물듸(현색불상응염, 現色不相應染)과 능히 보는 마음의 상응하지 않는 물듸(능견심불상응염, 能見心不相應染)을 일컫는 것이다.

### 細中之細者 謂根本業不相應染

미세한 것 중에서도 (가장) 미세한 것(細中之細)이라 함은 근본적인 업의 상응하지 않는 물듸(근본업불상응염, 根本業不相應染)을 일컫는 것이다.

### 此三 皆在第八識位

이 세 가지(불상응염)는 모두 제8식(第八識)의 지위에 있다.

### 此中三種細生滅者 無明風所動

이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미세한 생멸(불상응염)은 무명(無明)의 바람이 움직이게 한 바(결과)이다.

### 故言因滅故 不相應心滅

그러므로 말하기를, '인(因, 무명)이 멸하기 때문에 (심왕과 심소가) 서로 상응하지 않는 마음(미세한 번뇌)이 멸한다'라고 한 것이다.

### 於中三種麤生滅者 境界風所動

그 가운데 세 가지 종류의 거친 생멸(상응염)은 경계(境界)의 바람이 움직이게 한 바(결과)이다.

### <요약>

존재가 미혹되는 원인은 무명으로 인해 평등한 일심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옳다 그르다'며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별심으로 인해 천 가지 생각과 만 가지 배려인 '여섯 가지 물듸 마음(육종염심)'이 일어나며, 이는 모두 평등에 어긋나는 생멸하는 모습[生滅相]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을 인용하여 생멸하는 모습을 마음과 상응하는 '거친 번뇌(麤)'와 상응하지 않는 '미세한 번뇌(細)'의 두 종류로 분류하였다. 거친 번뇌 중에서도 가장 거친 것은 범부의 경계이며, 거친 것의 미세함과 미세한 것의 거친 것은 보살의 경계이고, 가장 미세

한 것은 오직 부처의 경계이다. 이 두 가지 생멸(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은 무명의 혼수에 의지하여 일어나는데, 깨닫지 못함이라는 '인(因)'과 망령되어 대상을 만드는 '연(緣)'에 기반한다. 원인의 조건인 무명(因)이 사라지면 미세한 불상응염이 소멸하고, 대상의 조건인 경계(緣)가 사라지면 거친 상응염이 함께 소멸한다. 구체적으로 마음과 서로 상응하는 거친 번뇌에는 세 가지 상응염이 있고, 서로 상응하지 않는 미세한 번뇌에는 세 가지 불상응염이 있다. 거친 것 중 가장 거친 집상응염과 부단상응염은 제6의식에 속하는 범부의 경계이며, 거친 것 중 미세한 지상응염은 제7식에 속하는 보살의 경계이다. 미세한 것 중 거친 두 가지(현색·능견심불상응염)와 가장 미세한 근본업불상응염은 모두 근본 의식인 제8식(아뢰야식)의 지위에 있다. 제8식에 속하는 미세한 생멸(불상응염)은 '무명의 바람'으로 움직이고, 제6·7식에 속하는 거친 생멸(상응염)은 '경계의 바람'에 의해 동요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618a01-24>

故言緣滅故相應心滅

그러므로 (경계라는) 조건이 멸하기 때문에, (그와) 상응하는 마음도 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於中委悉 如彼論疏中說也

그 가운데의 자세한 내용은, 저 논서의 주석서(疏)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今此經言 千思者 摠攝一切不相應染 細分別故

지금 이 경(經)에서 '천 번의 생각(千思)'이라고 말한 것은, 모든 '불상응염(不相應染)'을 통틀어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그것이 매우) 미세하게 분별되기 때문이다.

萬慮者 摠攝一切相應染心 麤分別故

만 번의 생각(萬慮)'이라는 것은, 모든 '상응염심(相應染心)'을 통틀어 거두어들이는 것이니, (그것이) 거칠게 분별되기 때문이다.

此二皆是動念之相 以之故言是生滅相也

이 두 가지(천사와 만려)는 모두 마음이 움직이는[動念] 모습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것을) 생멸하는 모습[生滅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經) 菩薩 觀本性相 理自滿足

보살은 본래 성품의 모습(본성상)을 관찰하여, (그) 이치가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어

千思萬慮 不益道理 徒爲動亂 失本心王

천 가지 생각과 만 가지 염려(천사만려)는 이치를 깨닫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한갓 (마음

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여 본래의 심왕(心王)을 잃게 할 뿐이다.

此下廣演 於中有三

이 아래로는 널리 펼쳐 설명하는데(광연), 그 가운데 세 가지 단계가 있다.

一者 對生滅相 顯理滿足

첫째는, (변하고 사라지는) 생멸의 모습과 대비하여, 이치가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음(리만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二者 對理滿足 明染闕失

둘째는, 원만한 이치와 대비하여, 오염된 마음(번뇌)이 가진 결함과 손실을 밝히는 것이다.

三者 辨順理滅染去動趣寂之利

셋째는, 이치에 순응하여 오염을 멀하고, 움직임(動)을 떠나 고요함(寂)으로 나아가는 이익을 판별하는 것이다.

初中言菩薩者 是呼解脫菩薩之辭

첫 번째 부분에서 ‘보살’이라고 말한 것은, 이는 (경전의 대화자인) 해탈보살(解脫菩薩)을 부르는 말이다.

觀本性相者 佛觀本覺如來藏性故

본래 성품의 모습(본성상)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본래적 깨달음인 ‘여래장(如來藏)’의 성품을 관찰하시기 때문이다.

理自滿足者 所觀本覺如來藏理 具足無量性功德故

이치가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리자만족)’라는 것은, 관찰되는 바인 본각(本覺) 여래장의 이치가, 무량한 본성상의 공덕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如起信論云

『대승기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復次 眞如自體相者

또한, 진여(眞如)의 자체적인 모습(자체상)이라는 것은,

從本已來 性自滿足 一切功德

근본으로부터 이미(예부터 지금까지), 그 성품이 스스로 모든 공덕을 원만히 갖추고 있다.

**所謂自體 有大智慧光明義故**

이른바 (진여의) 자체에 커다란 지혜의 광명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며,

**遍照法界義故**

법계(은 세상)를 두루 비춘다는 뜻이기 때문이며,

**眞實識知義故**

진실하게 (모든 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며,

**自性清淨心義故**

자성이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常樂我淨義故**

상·락·아·정(영원하고, 즐겁고, 주체적이며, 깨끗함)의 성질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清涼不變自在義故**

서늘하고 맑으며[清涼], 변하지 않고[不變], 걸림 없이 자유롭다[自在]는 뜻이기 때문이다.

**具足如是過於恒沙不離不斷不異不思議佛法**

(진여는) 이와 같이 항하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過於恒沙], (자체와) 떨어지지 않고[不離], 끊어지지 않으며[不斷], 다르지 않고[不異],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법(공덕)을 구족하고 있다.

**乃至滿足無有所少義故 名爲如來藏 亦名如來法身故**

나아가 (모든 공덕이) 충만하여 조금도 부족한 바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여래장(如來藏)’이라 이름하며, 또한 ‘여래법신(如來法身)’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今此經言 理自滿足 摠顯如是功德滿足也**

지금 이 경(금강삼매경)에서 ‘이치가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리자만족)’고 말한 것은, 이와 같은 (여래장의) 공덕이 충만함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요약>**

경계라는 조건이 멀하면 마음과 상응하는 거친 번뇌[相應染心]도 함께 소멸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승기신론소》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경전에서 말한 ‘천 번의 생각(千思)’은 미세하게 분별되는 모든 불상응염(不相應染)을 통틀어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반면 ‘만 번의 염려(萬慮)’는 거칠게 분별되는 모든 상응염심(相應染心)을 통틀어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천사와 만려)는 모두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動念之相]이므로, 결국 변하고 사라지

는 '생멸하는 모습[生滅相]'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살이 관찰하는 본래 성품의 이치는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으므로, 이러한 천사만력의 분별 망상은 깨달음의 도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분별심은 한갓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動亂] 만들 뿐이며, 중생이 지닌 본래의 청정한 마음의 주인인 '본래의 심왕(心王)'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원효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①생멸상에 대비한 이치의 원만함[理滿足], ②오염된 마음의 결함, ③오염을 멸하고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이익의 세 단계로 널리 펼쳐 논증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이치가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은, 관찰의 대상인 본각(본래적 깨달음) 여래장의 이치에 무량한 성품의 공덕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뜻이다.

《대승기신론》을 인용하여 밝히듯, 진여의 자체상(自體相)은 본래 청정하며, 큰 지혜의 광명과 상·락·아·정(常樂我淨), 그리고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스스로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진여는 항하사의 모래알보다 많은 불가사의한 부처의 법[佛法]을 결여됨 없이 충족하고 있으므로, 경전의 '리자만족(理自滿足)'은 이러한 여래장과 여래법신의 총체적인 공덕의 원만함을 드러낸 것이다.

<618b01-24>

初段文竟 次明生滅動念之過

첫 번째 단락의 글이 끝났다. 다음은 생멸하는 움직임(동념)의 허물을 밝히는 것이다.

於中摠明無益有損 如彼論中 廣釋此義云

그 가운데서 (번뇌가 수행에) 보탬은 없고 손해만 있음을 총체적으로 밝히는데, 저 논(기신론)에서 이 뜻을 널리 해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問曰 上說眞如 其體平等 離一切相

문기를, '위에서 말하기를 진여는 그 본체가 평등하여 모든 모습(상)을 떠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云何 復說體有如是種種功德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그 본체에 이와 같은 가지가지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答曰 雖實有此諸功德義 而無差別之相

답하기를, '비록 실로 이러한 여러 공덕의 의미가 있으나, (그것들 사이에 서로 나뉘는) 차별된 모습은 없느니라.

等同一味 唯一眞如

등등하게 한결같은 맛(일미)이며, 오직 하나의 진여일 뿐이다.

此義云何 以無分別 離分別相 是故無二

이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여의 공덕은) 분별이 없어 분별하는 모습(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본체와 공덕이) 둘이 아니니라(무이).

復以何義 得說差別

다시 어떤 의미로 (공덕에) 차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以依業識生滅相示。

업식(業識)의 생멸하는 모습에 의거하여 (공덕의 차별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이니라.

此云何示。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以一切法。本來唯心 實無相念

모든 법은 본래 오직 마음일 뿐이라, 실제로는 (차별된) 모습이나 생각이 없느니라.

而有妄心 不覺起念 見諸境界 故說無明

그런데 망령된 마음이 있어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켜 온갖 경계를 보게 되니, 이를 일러 '무명(無明)'이라 한다.

心性不起 卽是大智慧光明義故

마음의 본성이 일어나지 않는 것(不起), 이것이 곧 '커다란 지혜의 광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若心起見 卽有不見之相

만약 마음이 (주관적인) 견해를 일으키면, 곧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된다.

心性離見 卽是遍照法界義故

마음의 본성이 (차별된) 견해를 떠나는 것, 이것이 곧 '법계를 두루 비춘다(편조법계)'는 뜻이기 때문이다.

若心有動 非眞識知

만약 마음에 움직임(동념)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앎(지혜)이 아니다.

無有自性 非常非樂非我非淨

(움직이는 마음은) 자성이 없어서, 영원하지도[常] 즐겁지도[樂] 주체적이지도[我] 깨끗하지도[淨] 않다.

乃至具足過恆沙等妄染之義

나아가 향하사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망령된 오염(번뇌)의 의미를 구축하게 된다.

對此義故 心性無動 卽有過恆沙等諸淨功德相義示現

이러한 뜻에 대비되기 때문에, 마음의 본성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향하사보다 많은 모든 청정한 공덕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若心有起 更見前法可念者 卽有所少

만약 마음이 일어나서 다시 눈앞의 대상을 생각할 만한 것으로 본다면, 곧 (그만큼 본래의 공덕에서) 모자람이 생기게 된다.

如是淨法無量功德 卽是一心 更無所念

이와 같은 청정한 법의 무량한 공덕은 곧 '일심(一心)'일 뿐이니, 다시 (따로) 생각할 바가 없다."

是故滿足 名爲法身如來之藏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원만한 것을 일러 '법신'이라 하고 '여래장'이라 한다.

今此經言 徒爲動亂者 以心有動 非眞識知 無有自性 非常樂我淨等 故言動也

지금 이 경(금강삼매경)에서 '한갓 움직이고 어지러울 뿐[徒爲動亂]'이라고 말한 것은, 마음에 움직임이 있으면 참된 지혜가 아니며, 자성이 없어 (항상함·즐거움·주체성·깨끗함)<sup>16)</sup> 등이 없기 때문이니, 이를 '움직임(動)'이라 한다.

以心起見 卽有不見之相等 故言亂也 失本心王者 無量功德

마음이 견해를 일으키면 곧 (진리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 생기기 때문이니, 이를 '어지러움(亂)'이라 한다. '본래의 심왕(心王)을 잃는다'는 것은 (내 안의) 무량한 공덕을 놓친다는 뜻이다.

<요약>

변하고 사라지는 생멸하는 마음의 움직임[動念]이 수행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직 손해만 있음을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진여의 본체는 본래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떠나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차별된 모습도 없이 한결같은 맛[一味]으로 무량한 공덕이 구축되어 있다. 진여의 공덕은 주객관의 분별을 떠나 있으므로 본체와 공덕이 둘이 아니지만, 오직 중생의 '업식(業識)이 일으키는 생멸상'에 대비하여 차별적으로 설명될 뿐이다. 모든 법은 본래 오직 마음일 뿐이라 차별상이 없으나, 깨닫지 못하고 생각을 일으켜 대상을 보게 되는 망령된 마음을 일러

16) 열반 4덕으로 번역가능

‘무명(無明)’이라 한다. 마음의 본성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不起]가 바로 진여의 ‘커다란 지혜의 광명’이며, 주관적 견해를 떠난 상태[離見]가 곧 ‘법계를 두루 비춤’의 의미이다.

반대로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며, 자성을 잃어버려 영원함·즐거움·주체성·깨끗함[常樂我淨]을 상실하고 향하사 같은 번뇌를 일으킨다. 이처럼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無動] 비로소 향하사보다 많은 청정한 공덕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에 그대로 나타나게 [示現] 된다. 만약 마음에 분별심이 일어나 눈앞의 대상을 집착하게 되면, 중생은 본래 갖추고 있던 완벽한 공덕의 자리에서 그만큼의 모자람과 결핍을 겪게 된다.

경전에서 말한 ‘한갓 움직이고 어지러울 뿐[徒爲動亂]’이라는 것은, 마음의 동요로 인해 참된 지혜를 잃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에 빠짐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본래의 심왕(心王)을 잃는다’는 것은 마음의 분별과 망상으로 인해 내 안에 이미 일만하게 갖춰져 있는 무량한 공덕(여래장)을 놓치게 됨을 경고한 것이다.

### <618c01-24>

卽是一心 一心爲主 故名心王

곧 이것이 '일심(一心)'이다. 일심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심왕(心王)'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生滅動亂 違此心王 不得還歸 故言失也

생멸하고 움직이며 어지러운 것(동란)은 이 심왕을 어기는 것이니,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심왕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經) 若無思慮 卽無生滅 如實不起 諸識安寂 流注不生 得五法淨 是謂大乘  
만약 생각과 염려(사려)가 없으면 곧 생멸도 없으니, 여실히 일어나지 않아 모든 식(識)<sup>17)</sup>이 편안히 고요해진다. (번뇌의) 흐름이 생기지 않아 '오법(五法)<sup>18)</sup>'의 청정함을 얻으니, 이것을 일러 '대승(大乘)'이라 한다.

17) 원효의 식(識)에 대한 설명 및 여덟 가지 의식

원효대사의 해석에 따른 마음에 대한 분류와, 중생의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식(識)의 작용들이다. <여덟 가지 의식 (팔식, 八識)>: 전오식(前五識):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담당하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의 의식. 제6의식(意識): 전오식이 받아들인 정보를 종합하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식. 제7말나식(末那識): 자아에 집착하는 무의식적인 마음. 제8아뢰야식(阿賴耶識): 모든 경험과 업의 씨앗을 저장하는 근본 마음(무의식의 저장소). <여섯 가지 오염(六染)을 일으키는 의식의 다양한 양상>--의식(意識): 분별하고 집착하는 마음. 움직이는 식(업식, 業識): 근본 무지로 인해 마음이 최초로 동요하는 상태. 주관으로 바뀌어 가는 식(전식, 轉識): 대상을 보기 위해 주관(보는 자)이 일어나는 상태. 객관 대상을 허깨비처럼 나타내는 식(현식, 現識): 주관에 의해 대상(보이는 것)이 거울처럼 나타나는 상태. 분별하는 식(지식, 智識): 나타난 대상을 좋고 나쁜 것으로 분별하는 상태. 서로 이어 가는 식(상속식, 相續識): 분별한 마음을 바탕으로 고통과 즐거움의 감정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상태.

18) 오법 (五法) '오법'이라는 용어는 불교 경론에 따라 세 가지 다른 맥락과 의미로 나타난다. 경전/문헌 오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의미① 초기불전 『장아함경』 / 아비달마 문헌 (『구사론』 등)자아를 이루고

此下第三順理滅染 去動就寂 於中有二 正顯重成 此即正顯 去動就寂

이 아래는 세 번째인 '이치에 순응하여 오염을 멸하고 움직임을 떠나 고요함으로 나아감'이다. 그중에 '바르게 나타냄(정현)'과 '거듭 이름(중성)'의 둘이 있는데, 이것은 곧 움직임을 떠나 고요함으로 나아감을 바르게 나타낸 것이다.

若無思慮者 始從初地 乃至佛地 漸順一心平等法界 永無一切思慮分別故

생각과 염려(思慮)가 없다'는 것은, 초지(初地)에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기까지 점차 '일심(一心)의 평등한 법계'에 순응하여 영원히 모든 사랑과 분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即無生滅者 由前思慮 有生滅相 今無思慮 永無分別 二種生滅 究竟離故

곧 생멸이 없다'는 것은, 앞서의 사랑과 분별로 인해 생멸하는 모습이 있었으나, 이제는 사랑이 없어 영원히 분별이 없고 '두 가지 생멸'<sup>19)</sup>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다.

從此已去 順理不動 窮未來際 不復還動 故言如實不起

이로부터 나아가 이치에 순응하여 움직이지 않으니, 미래 제가 다하도록 다시는 움직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실히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二種生滅究竟息時 八種識動 皆得歸靜 六染流注 永滅不起 故言諸識安寂 流注不生

두 가지 생멸이 완전히 쉴 때, 여덟 가지 식(八識)의 움직임을 모두 고요함으로 돌아가고, 여섯 가지 오염된 흐름(六染流注)이 영원히 멸하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식이 편안히 고요해지고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

있는 다섯 가지 더미인 오온(五蘊)을 의미함.(색·수·상·행·식) ② 『대승입능가경』유식학의 핵심 교리인 다섯 가지 현상과 본질.명(名): 이름, 상(相): 현상/모습, 망상(妄想): 분별심, 정지(正智): 바른 지혜, 여여(如如): 진여(진리 자체) ③ 『유가사지론』마음과 마음의 작용(심소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작용· 촉(觸, phusana): 감각 대상과의 접촉· 작의(作意, manasikāra): 마음을 냄/주의 집중· 수(受, vedanā): 느낌/감정· 상(想, saññā): 개념적 지각/표상 작용· 사(思, cetanā): 의도/의지

19) 이중생멸 (二種生滅)『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근본 무지로 인해 일어나는 마음의 생멸(변화하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습) 양상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를 깨달음의 경지와 연결한 것이다. 구분 기준: 제6의식 차원의 마음과 '서로 응하는지(결합하는지)' 여부 ① 뚜렷한 양상 (추, 麤)정의: 제6의식 차원의 마음과 서로 응하는 것(興心相應).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친 마음의 상태이다. ② 미세한 양상 (세, 細)정의: 제6의식 차원의 마음과 서로 응하지 않는 것(興心不相應). 깊은 무의식 차원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마음의 상태이다. 인식 수준에 따른 수행자의 경지 (사성제/수행 계위)마음의 미세함을 얼마나 깊이 통찰하느냐에 따라 도달하는 경지가 달라진다. 범부(일반 중생)의 경지: 뚜렷한 양상 가운데서도 가장 거친 부분(추중지추, 麤中之麤)을 아는 수준. 보살의 경지: 뚜렷한 양상 중 미세한 부분(추중지세, 麤中之細) 및 미세한 양상 중 뚜렷한 부분(세중지추, 細中之麤)까지 알아차리는 수준. 부처(여래)의 경지: 가장 깊고 미세한 양상 속의 미세한 부분(세중지세, 細中之細)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아는 최고 깨달음의 수준.

流注不生故 法界圓顯 諸識安寂故 四智滿成 故言得五法淨

(마음 깊은 곳의 미세한) 흐름[流注]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법계(세상의 참모습)가 원만하게 드러나는 것이며, "모든 식(8식)이 편안히 고요해지기 때문에, (부처의) 네 가지 지혜[四智]가 원만히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법(五法)의 청정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運載之功 莫過於此故 摠結言 是謂大乘

(중생을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공덕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여 결론 짓기를 '이것을 일러 대승(大乘)이라 한다'라고 한 것이다.

正明去動就寂文竟

움직임을 떠나 고요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르게 밝힌 문장이 여기서 끝난다.

經) 菩薩 入五法淨 心即無妄

보살이 '오법(五法)'의 청정함에 들어가면, 마음에는 곧 망령됨(망상)이 없느니라.

若無有妄 即入如來自覺聖智之地

만약 (마음에) 망령됨이 없으면, 곧 여래의 '자각성지(自覺聖智)'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入智地者 善知一切從本不生 知本不生 即無妄想

(여래의) 지혜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본래부터 생겨난 적이 없음[從本不生]을 잘 아는 것이다. "본래 생겨나지 않았음을 알면, 곧 (그 자리에는) 망상이 없느니라.

此是重顯 即有三句

이것은 (앞의 도리틀) 거듭 나타낸 것이니, 곧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初言入五法

첫 번째는 '오법(五法)에 들어간다'라는 말이다.

<요약>

온갖 존재의 근본인 '일심(一心)'은 모든 마음 작용의 주인이 되므로 '심왕(心王)'이라 부르며, 생멸하는 움직임과 어지러움[動亂]은, 이 심왕을 어겨 본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보살이 수행을 통해 초지(初地)에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면, 일심의 평등한 법계에 점차 순응하여 마침내 모든 사랑과 분별 망상을 영원히 끊어내게 된다. 이처럼 분별적 생각과 염려[思慮]가 사라지면, 앞서 무명으로 인해 발생했던 거친 번뇌와 미세한 번뇌라는 '두 가지 생멸'을 완전히 여의게 된다. 두 가지 생멸이 비로소 완전히 쉬게 될 때, 중생의 마음에 요동치

던 여덟 가지 식(八識)의 움직임이 모두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나아가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 없이 솟구치던 여섯 가지 오염된 흐름[六染流注] 역시 영원히 소멸하니, 이를 경전에서는 '모든 식이 편안히 고요해지고 흐름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한다.

미세한 번뇌의 흐름[流注]이 생기지 않으면 우주의 참모습인 법계가 원만하게 드러나고, 여덟 가지 식이 고요해지면 부처의 네 가지 지혜[四智]가 원만히 성취된다.

원효는 이처럼 법계가 드러나는 것과 사지(四智)가 성취되는 것을 통틀어 '오법(五法)의 청정함을 얻는다'라고 명명하였다.

중생을 미혹에서 깨달음으로 실어 나르는 공덕 중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은 없기 때문에, 이를 총괄하여 결론짓기를 '대승(大乘)'이라 한다. 보살이 이 오법의 청정함에 들어가면 마음에 망령됨[妄]이 사라지며, 망상이 완전히 부서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여래의 '자각성지(自覺聖智)의 지위'에 진입한다. 결론적으로 여래의 지혜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이 본래부터 생겨난 적이 없는 평등한 구경의 상태[從本不生]임을 여실히 깨달아, 일체의 망상을 소멸하는 것임을 거듭 증명하고 있다.

## <619a01-a24>

### 淨心卽無妄者 歸心源時 卽無妄念之不覺故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곧 망념(헛된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 第二言 若無有妄卽入如來自覺聖智之地者

두 번째로 말한, '만약 망념(헛된 생각)이 없으면 곧 여래(부처)의 자각성지(스스로 깨닫는 성스러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 不覺盡時 卽入始覺圓智之地故

불각(깨닫지 못한 상태)이 완전히 다했을 때, 곧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이 원만해지는 원통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 是對不覺 顯始覺滿也

이는 불각(깨닫지 못한 상태)에 상대하여,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이 원만해졌음을 드러낸 것이다.

### 第三入智地者 善知一切從本不生 知本不生卽無妄想者

세 번째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간다'라고 한 것은, 모든 것이 본래부터 생겨난 것이 아님(본무생)을 잘 아는 것이니,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님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 始覺滿時 能知不覺 四相動念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이 원만해질 때(완성될 때), 능히 불각(깨달지 못한 상태)의 사상(네 가지 모습)으로 움직이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게 된다.

### 本來不生 卽知本來無妄想故 是顯始覺不異本覺也

본래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곧 본래부터 망상이 없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시각(수행을 통해 비로소 얻은 깨달음)이 본각(우리 안에 원래 있던 본래의 깨달음)과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 것이다.

### 如起信論云

《대승기신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 一切衆生 不名爲覺 以從本來 念念相續 未曾離念

일체의 모든 중생을 '깨달은 이(覺)'라고 이름하지 않는 것은, 본래부터 지금까지 생각과 생각이 서로 이어져서(念念相續), 일찍이 생각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 故說無始無明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이러한 상태를) '시작이 없는 무명(무시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若得無念者 卽知心相生住異滅 以無念等故

만약 무념(망념이 없는 상태)을 얻은 자라면, 곧 마음의 모습인 생(生)·주(住)·이(異)·멸(滅)의 사상(네 가지 단계)을 알게 되니, (그 지혜가) 망념이 없는 본래의 마음 상태와 동등하기 때문이다.

### 而實無有始覺之異 以四相俱時而有皆無自立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의 깨달음과 다른)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이라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니, 마음의 네 가지 모습(생·주·이·멸)이 동시에 존재하며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독립하여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本來平等 同一覺故

(모든 마음의 본질은) 본래 평등하여, 오직 하나의 깨달음(同一覺)일 뿐이기 때문이다.

### 案云 此中言若得無念 卽知心相生住異滅者

내가 살펴보건대(원효의 해설), 이 구절에서 '만약 무념(망념이 없는 상태)을 얻으면 곧 마음의 모습인 생·주·이·멸을 알게 된다'라고 말한 것은

### 卽顯經中 善知一切也

곧, 경전(금강삼매경) 안에서 말한 '일체의 모든 것을 잘 안다(善知一切)'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而實無有始覺之異者**

그러나 실제로는 (본래의 깨달음과 다른)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이라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卽顯經中 善知從本不生也 以四相俱時而有 皆無自立**

곧, 경전(금강삼매경) 안에서 말한 '본래부터 생겨난 것이 아님을 잘 안다(善知從本不生)'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왜냐하면) 네 가지 모습(생·주·이·멸)이 동시에 존재하여, 그 어떤 것도 스스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本來平等 同一覺故者**

본래 평등하여 오직 하나의 깨달음일 뿐이다. 라고 한 것은

**卽顯經中 知本不生 卽無妄想也 夢中渡河之喻<sup>20</sup> 此中應廣說也**

곧, 경전(금강삼매경) 안에서 말한 '본래 생겨나지 않았음을 알면 곧 망상이 없어진다(知本不生 卽無妄想)'라는 의미를 드러낸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꿈속에서 강을 건너는 비유'를 바로 이 대목에서 널리 설명해야 한다.

**經) 解脫菩薩而白佛言**

해탈보살(解脫菩薩)이 부처님께 여쭙었다.

**尊者 無妄想者 應無止息**

세존이시여, 망상이 없다고 한 자<sup>21</sup>면, 지(止,그침)와 식(息, 침)도 없어야 마땅합니다.

**此下第二問答 明無止息**

이하의 두 번째 문답(問答)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쉬는) 지(止)와 식(息)마저도 없음을 밝히는 부분이다.

**問意言 本無妄想卽無所止 所止無故 能止亦無 無能止故 應無始覺 如是難也**

질문의 의도(問意)는 이러하다. '본래 망상이 없다면 곧 가라앉힐 대상(所止, 망상)이 없는 것이고, 가라앉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가라앉히는 주체(能止, 수행하는 마음) 또한 없는 것이다. 가라앉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시각(비로소 시작된 깨달음)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이와 같이 반론한 것이다.

20) 화엄경탐현기 ABC 권 14 047\_0695\_C07 謂夢中渡河

21) 한 생각이 일어났지만 분별하여 법을 세우지 않는 사람

## <요약>

마음의 근원으로 돌아가면 망상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게 되므로 마음에 헛된 생각이 사라진다. 이처럼 마음에 분별과 집착의 망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바로 부처의 성스러운 지혜(자각성지)의 경지이다. 수행을 통해 깨달지 못한 어둠(불각)이 완전히 다했을 때, 비로소 시작된 깨달음(시각)은 마침내 원만해진다. 어둠이 사라져 깨달음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새로 얻은 깨달음(시각)은 내 안에 원래 있던 부처의 성품(본각)과 다르지 않음이 드러난다.

반면 일반 중생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생각과 생각을 끊임없이 이어가며(염념상속), 한 번도 그 생각을 떠나지 못해 어둠(무시무명)에 갇혀 있다. 수행을 통해 잡생각이 끊어진 청정한 상태(무념)를 얻으면, 마음이 찰나마다 생·주·이·멸(사상)로 요동치는 미세한 법칙을 거울처럼 볼 수 있다. 그 마음의 파도들을 끝까지 추적해 보면 고정된 실체 없이 서로 의지해 있을 뿐이라, 애초에 '망상이라는 것 자체'가 생겨난 적이 없음을 안다.

번뇌와 변화가 환상임을 깨달으면 "새로 깨달았다"는 차별마저 사라지고, 우주와 마음의 본질은 본래 평등한 하나의 깨달음(동일각)만 남는다.

중생의 고통(불각)도, 이를 벗어나려는 수행(시각)도 꿈속의 일일 뿐, 잠에서 깨어나면(본각) 애초에 강도 허우적대던 나도 없었음을 깨닫는 것과 같다.

**해탈보살의 난제:** 이에 해탈보살은 "망상이 본래 없는 환상이라면 가라앉힐 대상도 없는 것이니,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지식)과 깨달음(시각)도 모두 없는 것 아닙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 5. <금강삼매경론>의 내용과 분석

원효는 「금강삼매경」<sup>22)</sup> 8품을 서분, 정설분, 유통분의 세 범주로 분류하는 동시에, 정설분은 삼매를 성취하기 위한 수행을 설하는 '무상법품 · 무생행품 · 본각리품 · 입실제품 · 진성공품 · 여래장품'의 6품과 이에 대한 의심을 총괄하여 버리게 하는 총지품으로 구성된다고 분류한다. 원효는 「금강삼매경」의 구성 체계에 관한 6종의 6품 해석학을 공성(空性)의 '한 맛(一味)'으로 총괄한다.

「금강삼매경론」의 상세 목차는

1. 대의서술[述大義]
  - 1) 일심(一心)
  - 2) 삼공(三空)
2. 경전의 근본정신을 설명 [辯經宗]
  - 1) 일미관행(一味觀行)

22) 「금강삼매경」은 총 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서품(序品), 제2 무상법품(無相法品), 제3 무생행품(無生行品), 제4 본각리품(本利覺品), 제5 입실제품(入室際品), 제6 진성공품(眞性空品), 제7 여래장품(如來藏品), 제8 총지품(總持品)이다.

- 2) 심중법문(十重法門)
  3. 제목의 해석 [釋題名]
    - 1) 금강(金剛)
    - 2) 삼매(三昧)
  4. 글의 뜻풀이[消文義]
    - 1) 서론[序分]
    - 2) 본문[正說分]
      - (1) 관행을 드러냄 [別顯觀行]
        - 무상법품無相法品
        - 무생행품無生行品
        - 본각리품本覺利品
        - 입실제품入實際品
        - 진성공품眞性空品
        - 여래장품如來藏品
      - (2) 의문을 해소함[總遣疑情]
    - 3) 유통분(流通分)
- 으로 구성되어 있다.<sup>23)</sup>

「금강삼매경론」에서 ‘제1 무상법품은 ‘무상관(無相觀)을 밝히는 것이고, 제2 무생행품은 무생행(無生行)을 나타내는 것이며, 제3 본각리품은 본각(本覺)에 의하여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제4 입실제품은 허망(虛妄)으로부터 진실에 들어가는 것이며, 제5 진성공품은 일체의 행위가 진성의 공(空)함에서 나옴을 밝히는 것이고, 제6 여래장품은 한량없는 문이 여래장에 들어감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4)</sup>

불교에서는 지혜(智慧)로써 모든 것의 실상을 여실(如實)하게 깨닫는 것을 관(觀)이라고 하며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는 것을 행(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행이라고 함은, 다만 육체적 활동이나 외적 사물에 대한 작위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요, 일체의 정신적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무상(無相)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물에 형상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물의 안쪽에도 그러한 사물을 사물이도록 해주는 고정불변한 어떤 덩어리가 있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임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세계도 또한 그와 같음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무상관이라 하는 것은 이처럼 실상을 실상 그대로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무생(無生)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태어남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별적 사고 작용과 이에 따른 번뇌가 일어난 곳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요(覺初心無初相), 보다 근원적으로는 모든 분별의식과 사물의 차별상도 실제로는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으며,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본시 일어난 것이 따로 없다는 뜻이다.

23) 『철학사상』 별책 제7권 2호, 서정형(2006). 「원효 금강삼매경론」, p12

24) 박태원. (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따라서 입실제(入實際)라고 하지만, 들어가야 할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 아닌 것의 진상을 여실하게 깨닫는 것이 곧 '입실제'이다. 또한 실체를 깨닫는 것이 곧 입실제이다. 또한 실체를 깨닫는 것은 모든 현상의 상호관계가 모두 공한 속에서의 일임을 깨닫는 일이므로, 「진성공품」은 일체행이 진성공에서 나왔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본각제(本覺制)라는 것은, 깨달음에 다른 이로움을 뜻하는 것인데, 깨달음에 따른 일체의 행위는 자타에 이로움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이나 대립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스스로 평안하고 자재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것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효는 말하기를, 본각에 의해서 물(物)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한 것이다.

여래장은, 일체만법이 여래성(性)에 함장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니, 여래성을 떠나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초일목도 여래성의 표현이며, 제불보살도 또한 여래성의 실현이다. 다만 여래성이 가려지고 감추어졌다는 의미에서 장(藏)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모든 것이 여래성을 갈무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여래장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면 가리워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밝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는 깨달음과 미혹함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스스로 여래성 자성청정심(淸心) 일심(一心)을 사무치게 깨달아 다시는 의혹됨이 없으면 만 가지 현상을 나투더라도 그것에 구속됨이 없을 것이요 막히지 않을 것이요 자재할 것이지만, 이에 미혹하면 물물이 모두 장애가 되고 대립이 되며 일마다 걸림이 있어서, 마침내 일물(一物)에 처하면 일물에 걸리고 하나의 현상을 나타내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자재하지 못하게 되나니, 이와같이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깨달음과 깨달지 못함에 달린 것이다. 그러나, 비록 미혹함과 깨달음의 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깨닫는 것도 여래성이 하는 것이요, 미혹하는 것도 여래성이 하는 것이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닳할 것도 없는 것이다. 이처럼 여래성은 각(覺)과 불각(不覺)을 모두 포섭하고 인지(因地)와 과(果地)를 포괄하기 때문에 장(藏)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신론(起信論)」에서는 말하기를, '각과 불각이 화합하여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닌 것을 여래장이라고 이름한다' 한 것이며, 원효는 일심이 곧 여래장이라고 한 것이다. 비록 이러하나, 무시 이래로 익힌바 훈습이 깊고 무거우므로, 한 걸음도 떼어놓지 않더라도 스스로 명백한 청정 자성심이 밝게 빛나기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닌 것이다. 비록 선근이 있고, 신심이 있으며 용맹심도 있다 하더라도 직하(直下)에 한마음을 쉬어 다시는 생멸에 속박되지 않는 일이 쉬운 것이 아니다.<sup>25)</sup>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상호개방(通)과 수용(攝)의 통섭(通攝)철학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통섭철학을 두 가지 초점을 중심으로 펼치고 결국에는 통섭적으로 결합시킨다. 두 초점은 차이(相)와 선(禪)이다. 이 두 초점을 주제로 통섭철학을 펼치며 융합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론은 불교 계보의 모든 교학에 대한 통섭적 해석학이었다.<sup>26)</sup>

25) 경전의 세계. 불광교학부.(1990)

26) 금강삼매경론 상. 박태원.(2020).「금강삼매경」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p176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구도행각이 결국 어떤 성취로 귀결되었으며 그 성취의 의미는 무엇 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일 것이다.

## 6. 분항 원효<금강삼매경론>의 특징과 영향

「금강삼매경」은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의거하지 않으면 해석과 의미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짝이라 할 수 있다.<sup>27)</sup>

「금강삼매경론」은 원효의 말기 저술로 ‘선의 철학’을 밝히는 동시에 ‘철학의 선’을 세우고 있다. 「금강삼매경」은 현존하는 자료나 문헌연구 성과로 볼 때, 이 경전은 한반도에서 원효 생애의 만년에 등장하였으며, 그 찬술자 내지 찬술집단은 원효 및 대안(大安)화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삼매경」은 7세기의 한반도에서 한국불교인에 의해 찬술된 경전으로서 인도나 중국에서 찬술된 경들의 반열에 등재된 유일한 사례로 보인다. 「금강삼매경」은 삼매를 경전 제목으로 삼을 정도로 선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삼매 성취의 선(禪) 수행과 그 의미를 대승불교의 불교철학적 핵심 개념들과 결합시킴으로써, 선의 철학적 완결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삼매와 선수행에 대한 이러한 시도는 그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불교 사상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한 사례이다.

또한 「금강삼매경」과 「금강삼매경론」이 시도한 선의 철학적 체계화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금강삼매경」이 ‘삼매’를 전면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만큼, 「금강삼매경」이 한반도에서 찬술된 것이라면, 원효시대 7세기 한반도 불교계에는 선을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는 정황이 발생하였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강삼매경」 찬술자(들)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당시 새롭게 대두하는 선종의 태도와 주장이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불교계의 내적 역량과 중국 초기 선종의 등장이라는 외적 상황이 맞물리면서, 선을 주제로 하여 선에 대한 관점을 불설(佛說)의 권위를 빌려 천명하려는 문제의식과 태도가 「금강삼매경」의 찬술로 구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강삼매경」 찬술자(들)가 지녔던 문제의식의 한 초점은 ‘선의 철학적 근거를 체계화시키는 것’이었다고 본다. 28)

「금강삼매경론」은 「금강삼매경」의 주석서이며 원효의 사상이 응집된 사상서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생각한 모든 이론과 실천이 「금강삼매경론」에는 남겨져 있다.

27) 박태원.(2020), 「금강삼매경론 상」, p189.

28) 박태원.(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참고문헌>

<원전>

金剛三昧經論卷上(ABC, H0017 v1 )  
華嚴經探玄記 권14

<단행본>

혜원(2012),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서울: 선연

박태원(2014),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읽기.

박태원외17인(2020), 「금강삼매경론 상」, 서울: 세창출판사

불광교학부(1990), 「경전의 세계」, 서울: 불광출판부.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2006).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2호

<논문>

김지연(2016) 「북미불교의 원효 인식과 이해 - 로버트 버스웰, 박성배, 찰스 밀러, 리차드 맥브라이드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제49호 pp. 59~86

이병욱 (2025), 「원효사상이 동아시아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비교문화연구회』, 제99회 공동학술대회, 【제8발표】 pp.48-51